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에 관한 연구

The Influence o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ocial Maturity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Farming Villages

김희동*, 장연식*, 백지영*, 한재복**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Hee-Dong Kim(hdhm3830@hanmail.net)*, Yeon-Sik Jang(hkjys83@hanmail.net)*,
Ji-Young Baek(otwhite@hanmail.net)*, Jae-Bok Han(way2call@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을 양육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적절한 사회성숙도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안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상북도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 54명을 대상으로 단축감각프로파일, 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통계처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처리능력은 평균 154.33±21.24점, 사회성숙도의 영역 중 사회연령은 5.46±1.76세, 사회지수는 91.28±18.31로 각각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의 지연을 보였다. 둘째,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은 사회연령의 영역에 움직임 민감성,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에 해당하는 항목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0.05), 사회지수의 영역에서는 움직임 민감성,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의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셋째,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의 변인 분석 결과에서는 사회성숙도의 영역 중 사회연령 영역에 45.3%, 사회지수 영역에 66.3%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심어 : | 다문화가정 아동 | 감각처리능력 | 사회성숙도 |

Abstract

The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to examine how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farming areas can affect their social maturity. Short sensory profile and social maturity scale were conducted to fifty four children of multinational parents who live in Gyeongsangbuk-do and Jeollanam-do. The data were analysed by statistics process. The result of the analysis revealed three findings. Firstly, there existed certain delays in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social maturity. Multicultural children had an average point of 154.33±21.24 regarding sensory processing ability and with regards to social age and social quotient of social maturity of them were 1.76 year old and 91.28±18.31 point respectively. Another interesting finding is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influence, in which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the example group affected social maturity, were found in categories of movement sensitivity, underresponsive/ seeks sensation and low energy/weak of social age part(p<0.05).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auditory filtering as well as movement sensitivity, underresponsive sensation and low energy/weak of social quotient area(p<0.05). Finally, variables of the impact on social maturity of the group of children were analysed to examine to what extent sensory processing ability of the children had affected and the influencing rate of social age and social quotient of social maturity, with 45.3% and 66.3% respectively.

■ keyword : | Multicultural Children | Sensory Processing Ability | Social Maturity |

1. 서론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와 다른 민족 또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족을 통칭하는 용어로서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를 가진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아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1]. 이러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특히, 아동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 학교 환경, 사회 환경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2].

Gathercole는 다문화가정과 같이 이중 문화에 노출된 아동들의 경우 단일 문화 환경의 아동들 보다 사회적 정서적 발달에 어려움이 많고, 이들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문화 환경에서 두 가지 문화를 모두 배우는 것이 한 가지 문화를 습득하는 아동보다 사회적 행동에서 일반 아동들 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3]. 그들의 부모가 대부분 사회적이거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며, 부모와의 문화적 이질성으로 인해 갈등과 발달상에 많은 문제를 나타내고[4], 또래아이들로부터 집단 따돌림의 경험이 도시보다 농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단일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연령이 증가하면서 적응수준이 높아지지만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은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의 적응이 더욱 저하된다고 하였다[6]. 사회적 거부와 배척의 감정 또는 고립감이 성장하는 동안 계속 될 때 아동은 부적절한 행동의 형태를 나타낸다고 하였으며[7], 과격한 행동을 보이거나 위축되거나 소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8]. 이와 같은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과 발달은 이후 청소년기 및 성인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9].

아동의 전반적 발달과정에 있어서 촉각, 전정감각과 고유수용성감각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한 감각통합이 신변처리, 자기관리, 놀이, 학습과 관련되는 행동의 기초가 된다[10].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위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감각자극들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여 행동을 조직하고 계획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들을 해

석·연합·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적응반응(adaptive response)으로 발달시키며 성장한다. 그러나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부족이나 감각처리의 어려움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부적응 반응, 사회적 관계형성기술의 부족, 의사소통기술의 문제 등을 나타낸다[11]. 또한 학자들은 감각처리와 일상생활기능, 즉 학습, 놀이, 일 그리고 사회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 하였다[12]. 이렇게 아동에게 다양하고 많은 자극이 필요한 시기에 결혼이민 여성들이나 가족구성원들도 문화적응 중에 있으며 한국어가 서투러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많고 양육하는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필요한 자극을 주는데 한계가 있게 된다[13]. 2000년대 이후부터 국제결혼 관련 연구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술 중심의 기초연구가 축적되고 있는 시기로 다문화 가정의 적응양상이 한국가족체계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과 발달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는 아주 최근 들어 나타나고 있다[14].

따라서 환경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이 가지게 되는 환경적 요소들과 감각·사회적 요인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의 정도를 알아보고, 향후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을 양육지원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적절한 사회성숙도를 통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을 알아본다.

둘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성숙의 정도를 알아본다.

셋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북도 봉화군과 전라남도 나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한 남아아동 25명, 여자아동 29명으로 총 54명을 대상으로 단축감각프로파일(short sensory profile, SSP), 사회성숙도검사(social maturity scale, SMS)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초기기는 2012년 7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이었으며 연령이 낮은 아동들은 설문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모, 다른 가족, 형제, 교사가 대신 응답하도록 하였다.

2. 측정도구

2.1 단축감각프로파일(SSP)

단축감각프로파일은 감각처리의 어려움을 가진 아동들을 선별하기 위한 측정도구로서 McIntosh 등[15]이 개발하였고 이를 김미선[16]이 번안하고 수정한 도구를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이 선별도구는 3세에서 10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감각처리능력과 관련된 아동의 행동을 측정하는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이며, 총점은 190점으로 결과는 190점에서 155점까지는 정상반응(typical performance), 154점에서 142점까지 문제가능성(probable difference), 141에서 38점까지는 확실하게 문제(definite difference)가 있음으로 해석된다[17]. SSP의 Cronbach's α 는 0.70~0.90이다[16].

2.2 사회성숙도 검사(SMS)

사회성숙도검사(SMS)는 Doll의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을 모태로 하여, 김승국 등[18]에 의해 우리나라의 배경과 연령 수준에 맞게 수정, 보완된 검사이다. 0세에서 30세까지의 성인을 대상으로 발달 과정 순으로 배열된 11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성숙도 검사는 사회연령(social age, SA)과 사회지수(social quotient, SQ)로 산출된다. 검사도구의 Cronbach's α 는 0.84로 나타났다.

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

는 다문화가정 아동 54명을 대상으로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가정방문을 통하여 부모와 아동에게 연구방법과 목적을 설명하고, 참여에 동의를 얻은 후에 아동에게 단축감각프로파일검사, 사회성숙도검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for Window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에 대한 유의성 분석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의 하위항목간의 관련성 검정은 이변량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감각처리능력 하부 항목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안하기 위해 단계제거법을 사용하여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α)은 0.05로 선정하여 검증하였다.

III. 결 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연구에 참여한 아동은 총 54명으로 3~4세가 13명(24.2%), 5~6세가 34명(63.3%), 7세 이상이 7명(13.2%)으로 5~6세가 가장 많았다. 성별은 남자가 25명(46.3%), 여자가 29명(53.7%)으로 여자가 더 많았다. 다문화가정 아동 어머니의 한국 이주기간은 5년 미만이 4명(7.4%), 6~8년 21명(38.9%), 9년 이상 29명(53.7%)으로 9년 이상이 가장 많았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 종류는 농업 32명(59.3%), 사무직 14명(25.9%), 자영업 6명(11.1%), 기타 2명(3.7%)으로 농업이 가장 많았다. 아동의 가정 월평균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25명(46.3%), 100~200만원이 18명(33.3%), 200~300만원 미만이 11명(20.4%)으로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았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족 중 자녀의 수는 1명이 23명(42.6%), 2명이 14명(25.9%), 3명이 14명(25.9%), 4명 이상이 3명(5.6%)으로 1명이 가장 많았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대상자 수(명)	%
나이	3-4세	13	24.2
	5-6세	34	63.3
	7세 이상	7	13.2
성별	남	25	46.3
	여	29	53.7
이주기간	5년 미만	4	7.4
	6~8년	21	38.9
	9년 이상	29	53.7
어머니 직업 유무	유	20	37.0
	무	34	63.0
아버지 직업종류	농업	32	59.3
	사무직	14	25.9
	자영업	6	11.1
	기타	2	3.7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5	46.3
	100~200만원	18	33.3
	200~300만원미만	11	20.4
형제, 자매 수	1명	23	42.6
	2명	14	25.9
	3명	14	25.9
	4명이상	3	5.6

2. 특징별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의 정도

2.1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의 정도

감각처리능력검사의 평가는 점수가 낮을수록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검사 결과는 평균 154.33±21.24로 나타났다. 촉각 민감성은 29.07±3.52, 맛/냄새 민감성은 15.20±3.61, 움직임 민감성은 12.80±1.65, 과소 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은 27.90±6.65, 청각 여과하기는 22.81±7.93,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은 24.90±4.78, 시각/청각 민감성은 21.00±3.25으로

표 2.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 정도

항 목	M±SD	
촉각 민감성	29.07±3.52	
맛/냄새 민감성	15.20±3.61	
감각 처리 능력 (SSP)	움직임 민감성	12.80±1.65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27.90±6.65
	청각 여과하기	22.81±7.93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24.90±4.78
	시각/청각 민감성	21.00±3.25
총점(평균)	154.33±21.24	
사회성숙도(SMS)	사회연령(SA)	5.46±1.76
	사회지수(SQ)	91.28±18.31

나타났다. 움직임 민감성의 항목에 대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고, 청각 여과하기(22.81±7.93)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회성숙의 정도에 있어서 사회연령은 평균 5.46±1.76세 이고 사회지수는 91.28±18.31로 나타나 농촌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연령이 평균연령보다 낮고, 사회지수도 낮게 나타났다[표 2].

2.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결과 분석에서 감각처리능력은 나이(F=1.895), 어머니의 한국 이주기간(F=3.284), 어머니의 직업 유무(F=-3.044), 아버지의 직업종류(F=6.299), 월평균 소득(F=5.95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성별(F=0.583)과 형제자매 수(F=2.627)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사회성숙도에 있어서 사회지수는 나이(F=4.229), 어머니의 한국 이주기간(F=17.806), 어머니의 직업 유무(F=-3.354), 아버지의 직업종류(F=25.155), 월평균 소득(F=23.482), 형제자매 수(F=12.841)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그러나 성별(F=1.543)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표 3].

표 3. 일반적 특성이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지수에 미치는 영향

변수	구분	감각처리능력			사회지수		
		M±SD	t/F	df	M±SD	t/F	df
나이	3-4세	149.07±18.36			89.33±9.66		
	5-6세	153.73±22.36	1.895*	2	88.35±18.79	4.229*	2
	7세 이상	167.71±17.61			108.97±21.35		
성별	남	156.16±21.22			95.36±18.48		
	여	152.76±21.50	.583	52	87.75±17.73	1.543	52
이주기간	5년 미만	145.25±12.84			82.63±5.56		
	6~8년	146.38±26.31	3.284*	2	78.08±13.10	17.806***	2
	9년 이상	165.55±27.93			102.02±15.74		
어머니 직업 유무	유	148.06±17.13			85.41±15.51		
	무	165.00±23.62	-3.044*	52	101.25±18.73	-3.354*	52

	농업	152.25± 27.73			81.40± 13.16		
아버지 직업종 류	사무직	170.86± 24.58	6.299**	3	110.04± 13.54	25.155***	3
	자영업	159.67± 22.02			99.18± 17.70		
	기타	117.00± 21.21			94.30± 1.41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164.76± 18.85			78.48± 12.70		
	100~ 200 만원	154.61± 23.70	5.955**	2	97.96± 12.82	23.482***	2
	200만 원 이상	171.09± 11.37			109.41± 16.07		
1명	145.91± 17.34	78.60± 11.20					
형제자 매 수	2명	157.00± 22.02			93.85± 18.36		
	3명	164.57± 22.579	2.627	3	107.45± 14.57	12.841**	3
	4명	158.67±			100.97±		
	이상	23.44			8.19		

* $p < 0.05$, ** $p < 0.01$, *** $p < 0.001$

2.3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감각처리능력의 세부 항목이 사회성숙도의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결과 아동의 사회연령에 있어서 움직임 민감성(F=9.411),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F=1.905),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F=2.26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p < 0.05$), 사회지수는 움직임 민감성(F=20.483),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F=4.400), 청각 여과하기(F=2.077),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F=2.621), 감각처리능력 총점(F=2.750)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p < 0.05$). 그러나 촉각에 대한 민감성, 맛/냄새 민감성, 시각, 청각 민감성은 아동의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다($p > 0.05$)[표 4].

표 4.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

감각처리 항목	사회연령			사회지수		
	F	df	Sig.	F	df	Sig.
촉각 민감성	1.719	13.094		1.113	13.377	
맛/냄새 민감성	1.660	12.113		1.727	12.096	
움직임 민감성	9.411	5.000***		20.483	5.000***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1.905	18.050*		4.400	18.000***	
청각 여과하기	1.346	18.220		2.007	18.038*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2.265	15.021*		2.621	15.008**	
시각/청각 민감성	.636	11.788		1.147	11.352	
총점	1.890	36.081		2.750	36.014*	

3.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간의 상관관계

다문화가정의 사회연령과 감각처리능력의 상관관계에서는 하위항목 중 맛/냄새 민감성($r=0.275$), 움직임 민감성($r=0.599$),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r=0.459$),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r=0.483$), 시각/청각 민감성($r=0.288$), 감각처리능력 총점($r=0.5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지수와 감각처리능력 하위항목 중 움직임 민감성($r=0.742$),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r=0.632$), 청각 여과하기($r=0.329$),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r=0.458$), 시각/청각 민감성($r=0.370$), 감각처리능력 총점($r=0.59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5].

표 5.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간의 상관관계

항목	사회연령	사회지수
촉각 민감성	.052	.477
맛/냄새 민감성	.044*	.060
움직임 민감성	.000**	.000**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000**	.000**
청각 여과하기	.089	.015*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000**	.001**
시각/청각 민감성	.035*	.006**
총점	.000**	.000**

* $p < 0.05$, ** $p < 0.01$

4.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변인 분석

아동의 사회성숙도의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감각처리능력 하위항목 중 촉각에 대한 민감성, 맛/냄새 민감성, 움직임에 대한 민감성,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시각/청각 민감성이 있다.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단계제거법을 사용하였고, 그 결과 내용타당성이 검증된 설문문항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각처리능력 총점이 제외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다중회귀 분석의 결과 추정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사회연령 : $\hat{Y} = -5.256 + 0.035 * \text{촉각 민감성} + 0.026 * \text{맛/냄새 민감성} + 0.498 * \text{움직임에 대한 민감성} + 0.010 * \text{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 - 0.004 * \text{청각 여과하기} + 0.085 * \text{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 0.033 * \text{시각/청각 민감성}$.

촉각 민감성이 높을수록, 맛/냄새 민감성이 높을수록, 움직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이 높을수록, 청각 여과하기가 낮을수록,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이 높을수록, 시각/청각 민감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연령이 높게 나타나며, 분석 결과 $r=.673$ 로 사회연령 변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중 45.3%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사회지수 : $\hat{Y} = -17.460 - 0.492 * \text{촉각 민감성} - 0.039 * \text{맛/냄새 민감성} + 6.425 * \text{움직임에 대한 민감성} + 0.708 * \text{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 + 0.028 * \text{청각 여과하기} + 0.275 * \text{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 0.690 * \text{시각/청각 민감성}$.

촉각 민감성이 낮을수록, 맛/냄새 민감성이 낮을수록, 움직임에 대한 민감성이 높을수록, 과소반응/특정자극 찾는 행동이 높을수록, 청각 여과하기가 높을수록,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이 높을수록, 시각/청각 민감성이 높을수록 아동의 사회지수가 높게 나타나며, 분석 결과 $r=.814$ 로 사회지수 변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중 66.3% 정도로 설명할 수 있다[표 6].

표 6.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변인 분석

예측변인	사회연령		사회지수		
	B	β	B	β	
(상수)	-5.256		-17.460		
촉각 민감성	.035	.069	-.492	-.095	
맛/냄새 민감성	.026	.052	-.039	-.008	
움직임 민감성	.493	.463	6.425	.580	
감각 처리 능력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010	.039	.708	.256
	청각 여과하기	-.004	-.020	.028	.012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085	.230	.275	.072
	시각/청각 민감성	.033	.061	.690	.122
	ΔR^2	.453		.663	

IV. 고찰

본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의 정도를 알아보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도에 미치는 영향과 변인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진행 되었다. 그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정도를 위해 사회연령과 사회지수를 알아 본 결과 대상자 총 54명의 감각처리능력은 평균 154.33±21.24로 154~142점까지의 문제가가능성 지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함보현 등[13]의 다문화가정 아동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은 평균 151.68±22.62로 문제 가능성 지수에 포함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 아동들은 본 연구 대상자와 유사한 나이에 불구하고 대부분이 감각처리능력이 170.45±12.27로 높게 나타났다[16][19]. 아동의 감각조절능력에 대한 연구에서 아동의 정보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서 얻어져야하며, 평가자의 지식과 능력, 면접기술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20]. 이는 감각처리능력은 개별적인 특성을 가지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감각처리능력에 대한 좀 더 세밀한 평가와 중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사회성숙도는 아동의 평균나이 5.95±1.24세 아동의 사회연령 5.46±1.76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수는 91.27±18.31로 아동의 자신의 현재 나이에 비해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지연을 볼 수 있다. 강성률[21]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성숙도 연구 결과에서 심리·사회적 적응정도를 우울불안, 공격성, 사회적 미성숙에 대한 결과 사회적 미성숙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와 측정도구는 다르지만 유사한 결과를 가지며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 성숙의 지연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도의 사회지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아동의 나이, 아동 외국인 모의 한국 이주기간, 어머니의 직업 유/무, 아버지의 직업종류, 월평균소득에 따라서 자녀의 감각처리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연령 문화 및 환경과 같은

개인의 처한 상황, 인지, 기능, 성격, 대처기술 그리고 이전의 경험 및 기억 등이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의 감각처리능력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를 나타낸다[22]. 이는 아동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각처리능력의 증가를 보였고 어머니의 이주기간이 길고 무직이면 감각처리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아버지의 직업 중 농업이 사무직에 비해 낮고,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감각처리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사회지수는 아동의 나이, 외국인 모의 한국 이주기간, 어머니의 직업 유/무, 아버지의 직업종류, 월평균 소득, 형제자매 수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정도를 검증한 장덕희 등[23]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경우 직업과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부인은 연령, 학력, 가정경제, 직업유무 출신국가에 따른 집단 간의 문화적응정도에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농촌 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가정환경이 아동의 사회적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도의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결과 감각처리능력 하부 항목 중 움직임의 민감성,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이 사회연령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고, 감각처리능력 하부 항목 중 움직임의 민감성, 과소반응/특정 자극을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은 사회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이지연 등[24]의 연구에서 미성숙한 아동일수록 과소반응/특정 자극 찾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점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결과와 유사하다. Case-smith 등[25]은 감각처리능력의 문제는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혼란스러운 사회적 행동을 보이고,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인지, 행동, 심리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26].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가지며 인간의 발달이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감각적 자극의 적절한 처리능력이 사회적으로 성숙하고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도의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미치는 영향의 변인 분석 결과 감각처리능력 총점을 제외하고 촉각민감성, 맛/냄새 민감성, 움직임의 민감성, 과소반응/특정 자극 찾기, 청각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시각/청각 민감성 항목이 사회연령에 45.3%, 사회지수에 66.3%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는 다르지만 채수경[27]의 발달장애 아동의 감각통합 치료 적용한 결과 실험군 아동의 사회행동과 적응행동의 향상을 나타내었고, 한미애 등[28]의 연구결과에서는 그룹 감각통합 치료 후 아동의 사회연령과 사회지수에 기능 향상을 보였다. 또한 감각 처리의 어려움은 사람과 사물의 상호작용을 방해하고[29],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도 감각처리능력의 문제가 있는 아동은 외부적인 사회성 놀이의 참여의 결여를 나타냈다. Piaget[30]은 아동의 감각 운동과 함께 발달기 동안 지속적으로 다양한 감각적 자극을 통하여 집단 활동에 필요한 개념 형성의 과정의 필수적인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V. 결론

본 연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적 성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고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은 평균 154.33±21.24점, 사회성숙도의 사회연령은 5.46±1.76세, 사회지수는 91.28±18.31로 감각처리능력과 사회성숙의 지연을 보였다.

둘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으로 사회연령은 움직임 민감성, 과소반응/특정 자극 찾는 행동,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고, 사회지수는 움직임 민감성, 과소반응/특정 자극 찾는 행동, 청각 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감각처리능력 총점과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셋째,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감각처리능력이

사회성숙에 미치는 영향의 변인 분석 결과 촉각 민감성, 맛/냄새 민감성, 움직임의 민감성, 과소반응/특정 자극 찾기, 청각여과하기, 활력이 부족하고 허약함, 시각/청각 민감성의 항목들이 사회연령에 45.3%, 사회지수에 66.3%로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수가 늘어나면서 그들의 자녀들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적응과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서의 많은 도움과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제공되어야만 한다. 모두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와 적절한 자극을 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질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조사지역이 전남, 경북 일부지역의 대상자들에 준하고 있어서 조사 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추후 다양한 농촌지역의 많은 대상자들의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류진아, “농어촌 다문화가정 아동의 적응 유형과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지, 제16권, 제2호, pp.5-27, 2011.
- [2] 이재은, *유치원과 연계한 초등학교실 환경구성과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3] V. Gathercole, *Command of the mass/count distinction in bilingual and monolingual children: An English morphosyntactic distinctio*,” In Oler & Gathercole, V. (Eds.), *Language Transmission in Bilingual Families in Wales*. Cardiff, Welsh Language Board, 2002.
- [4] 우현경, 정현심, 최나야, 이순형, 이강이,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유아기 언어 발달”, 아동학회지, 제30권, 제3호, pp.23-36, 2009.
- [5] 이지영, “다문화가정 자녀가 지각한 부모애착과 또래애착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제65권, pp.169-186, 2010.
- [6] 이영주, “국제 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2권, 제2호, pp.83-105, 2007.
- [7] 박순희,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제29권, pp.125-154, 2009.
- [8] 박기관,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자료집, pp.87-106, 2009.
- [9] 전숙자, 박은아, 최윤정, *다문화사회의 새로운 이해*, 서울: 도서출판 그린, 2009.
- [10] A. G. Fisher and E. A. Murray, “Instruction to sensory integration theory” In Fisher, A. G. Murray, E. A. Bundy, A. C. (Eds.), *Sensory integration Theory and practice*, Philadelphia: F. A. Davis, 1991.
- [11] G. Dawson and R. Watling, “Interventions to facilitate auditory, visual, and motor integration: a review of the evidence,”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Vol.30, No.5, pp.415-421, 2000.
- [12] E. Anderson and P. Emmons, *Unlocking the Mysteries of Sensory Dysfunction*, arlington, Future Horizons, 1996.
- [13] 함보현, 김수경, “다문화와 일반 가정의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비교”,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8권, 제1호, pp.15-26, 2010.
- [14] 광금주,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1-21, 2008.
- [15] D. N. McIntosh, L. J. Miller, V. Shyu,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ensory profile*, In: Dunn W.(Ed.). *The sensory profile: Examiner’s manual*. San Antonio, Psychological

Cooperation, 1999.

[16] 김미선, *일반아동과 발달장애아동의 감각처리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17] 김경미, "단축감각프로파일 타당성 연구",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2권, 제1호, pp.1-10, 2004.

[18] 김승국, 김옥기, *사회성숙도검사*,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19] 박미선, 송지훈, 현효진, 김경미, "취학 전 시설보호 아동의 수용기간과 감각조절 기능과의 관계",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7권, 제1호, pp.59-69, 2009.

[20] 김경미, "감각통합치료의 역사적 고찰",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제1권, 제1호, pp.1-7, 2003.

[21] 강성률, *가족 및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위덕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2] G. T. Baranek, "Autism during infancy: Aretrospective video analysis of sensory motor and social behaviors at 9-12months of age," *Journal Autism Developmental Disorder*, Vol.29, No.3, pp.213-224, 1999.

[23] 장덕희, 이정은,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부부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가족요인의 영향", 한국농촌사회학회, 제21권, 제2호, pp.103-139, 2011.

[24] 이지연, 정민예, "학령기 전 아동의 감각처리능력과 문제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제10권, 제2호, pp.57-67, 2002.

[25] J. Case-Smith and T. Brian, "The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with sensory interaction emphasis on preschool-age children with autism," *Am J Occup Ther*, Vol.53, pp.489-497, 1999.

[26] W. Dunn, *Sensory profile: User's manual*. San Antonio, TX: Psychological Corporation, 1999.

[27] 채수경, *놀이중심의 감각통합치료 프로그램이 발달장애 아동의 행동 및 감각기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28] 한미애, 장기연, 김지연, 한수현, "그룹 감각통합 치료가 발달장애 아동의 운동기능 및 사회성 증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감각통합학회지, 제7권, 제2호, pp.23-35, 2009.

[29] A. C. Bundy, S. Shia, L. Qi, and L. J. Miller, "How does sensory processing dysfunction affect pla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61, pp.201-208, 2007.

[30] J. Piaget, *피아제의 심리학(김재은 역)*, 서울: 익문사, 1972.

저 자 소 개

김 희 동(Hee-Dong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사)
 - 2012년 2월 :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석사)
 - 2014년 2월 : 동신대학교 보건의료학과(작업치료학전공 박사수료)
 - 2009년 ~ 현재 : 노블레스요양병원 작업치료사
- <관심분야> : 노인작업치료

장 연 식(Yeon-Sik Jang)

정회원



- 2010년 2월 :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사)
 - 2012년 2월 :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이학석사)
 - 2014년 2월 : 동신대학교 보건의료학과(작업치료학전공 박사수료)
- <관심분야> : 신경계 작업치료

한 재 복(Jae-Bok Han)

정회원



- 2003년 2월 : 호남대학교 컴퓨터 공학과(공학사)
- 2007년 2월 :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석사)
- 2013년 8월 : 전남대학교 전자공학과(공학박사)

▪ 2009년 ~ 현재 : 동신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

<관심분야> : 객체분할, 의료영상압축

백 지 영(Ji-Young Baek)

정회원



- 2001년 2월 : 단국대학교 물리작업치료전공(교육학석사)
- 2008년 8월 : 단국대학교 물리작업치료전공(교육학박사)
- 2009년 ~ 현재 : 동신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관심분야> : 신경계 작업치료